

# 정읍시,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나선다

472가구 전기·도배·장판 교체  
3억원 투입 65가구 리모델링  
장애인주택 7가구 개조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앞둔 농촌주택.

정읍시가 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시설의 안전을 점검하고 대대적인 보수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는 올해 총 4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내 저소득층 472가구에 대해 전기·가스시설, 보온단열재, 도배·장판 교체 등 시설을 점검 보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건 등으로 제때 보수를 하지 못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에 65가구 대상으로 3억원을 투입하고,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으로 400가구에 1억원, 농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으로 7가구에 3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계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비(복권기금)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정부 정책의 조기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위기가구 주민들이 안전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11월 말

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정읍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만화로 보는 전통장류 제조관리

순창군 책자 발간 배포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만화로 보는 전통장류의 이해' (사진)를 발간했다. 지난해 발간된 '전통장류 제조관리 매뉴얼'을 만화로 풀었다. 이를 통해 일반인과 장류 제조업체 관련 종사자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품질의 전통장류를 제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제작했다. 책은 전통장류의 특성 이해, 전통장류 제조 이해, 전통장류 관리 이해, 전통장류 공장 이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통장류에 대한 정보와 장류 제조공정별 관리 요소, 주의점 등을 수록해 품질 유지를 위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 장류 생산 관리계획 등 생산공장 구축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함한 소규모 기업체에서

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도연 진흥원장은 "이번에 발간한 만화로 보는 전통장류의 이해가 장류 산업 부흥의 기반이 되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우리나라의 장류 역사와 전통식품 문화 계승을 위해 장류 기능성 규명(안전성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순창 전통장류가 시대의 변화에 맞춘 글로벌 소스로 도약할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 AR로 만나는 백제역사...익산시 백제왕궁 박물관 내달 개관

사업비 140억원 투입 건립  
ICT 활용 전시 콘텐츠 다양화



정현율(맨 앞줄) 익산시장이 백제왕궁 박물관 막바지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익산시 제공>

익산시가 ICT기술을 활용해 백제 역사를 생생하게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백제왕궁 박물관'을 4월 개관한다. 세계유산 왕궁리유적의 보존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고 있는 백제왕궁 박물관에는 총 사업비 140억원이 투입됐다. 박물관은 기존 왕궁리유적 전시관 리모델링과 함께 가상체험관 증축을 통해 전시공간을 확대하고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새로 개관될 전시관은 ICT 기술을 활용해 기존 박물관과 차별화했다. 백제왕궁의 조성과정과 발굴된 문화재 등을 AR, VR, 홀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박물관은 4월 개관을 통해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공개된다. 박물관 건축 공사는 지난해 말 완료됐고 현재 전

시 콘텐츠 설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세계유산 왕궁리유적을 다양한 ICT 기술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고창군, 내일부터 만 5~11세 코로나 백신접종

소아전용 화이자백신 접종

사전예약 후 보호자(법정대리인)를 동반해 접종받으면 된다. 18세 이상 기초접종 미접종자와 의학적 소견으로 접종을 하지 못했거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2차, 3차 접종을 하지 못한 분들은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유병수 고창군 보건소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다"며 "특히 소아에서도 고위험군의 경우 접종이 중요하므로 적극 접종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형주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이 만5~11세 소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31일부터 시작한다. 백신 접종대상은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이부터 2017년생 중 생일이 지난 아이까지 해당된다. 접종은 소아전용 화이자백신으로 진행된다. 1, 2차 접종간격은 8주(56일)로 의학적 사유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3주(21일)로 조정이 가능하다. 접종기관은 고창병원과 고창군보건소 등 2곳이다.

# 4월1~6일 식목일·청명·한식 기간 남원시,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진화대 27명·감시원 120명 투입

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7명을 3개조로 나눠 각 권역별로 분산 배치해 산불 초기대응에 나서고, 산불감시원 120명을 투입해 읍·면·동 주요 입산로와 소각행위 계도 등 산불예방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또 입산 시 산불 예방 수칙으로 ▲등산 시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논밭소각, 쓰레기 소각 금지 ▲담배꽂초 무단 투척 금지 등을 당부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산불예방 홍보 및 단속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더 이상 남원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가 식목일과 청명·한식을 맞아 오는 4월1일부터 6일까지 '청명·한식 기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청명·한식기간은 성묘객과 상춘객, 식목 활동 등 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본격적인 영농철과 겹쳐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 또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신규입점자 시설비 지원

업소당 최대 5000만원까지

군은 2~3개소이며, 신청기간은 4월15일까지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중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나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리모델링 등과 관련해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영업장 시설 증·개축비, 내부 인테리어 수선비, 간판 설치비 등이며, 조리도구와 식품 구매는 제외된다. 보조금은 예산한도 내 업소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며, 자부담 비율은 20%이다. 문다해 군산시 위생행정과장은 "짬뽕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관광객들로 하여금 군산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군산시가 장미동 짬뽕 특화거리 신규 입점자에게 시설비 5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이후 짬뽕 특화거리 내 입점하고자 하는 중식당 운영자와 창업예정자로 모집입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 1522-9341